

제주특별자치도 시민실천운동 확산방안

건양대학교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 정 원 희

I. 들어가며

시민실천운동은 이제 일반적인 지방자치의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 각 지역의 경우 시민실천운동을 통해 지역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최근 제주 서귀포시에서도 쓰레기 줄이기 시민실천운동본부를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

그러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그리고 학습을 통한 시민실천운동의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기 어려운 단점이 존재한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시민실천운동을 확산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내용은 시민실천운동 중 타운홀 미팅과 학습공동체를 중심으로 시민실천운동의 확산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시민운동은 대부분 관 주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도 역시 다양한 시민들이 제주도에 정착하면서 도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는 상황이다. 따라서 인구 60만 이상의 도시로 제주도가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시민의식이 필요하며, 적극적인 정책참여를 통한 시민실천운동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이론적인 틀을 벗어나 실천적인 시민운동으로서 그리고 학습에 의한 시민운동으로서의 타운홀 미팅과 학습공동체의 사례를 통해 기존의 시민운동의 틀을 탈피하여 새로운 시민실천운동의 모델을 구축하고자 한다.

II. 시민실천 운동 사례

1. 국내 사례

1) 국내 타운홀 미팅 실천사례

서울 성북구

서울 성북구는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을 위한 시장과 주민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다. 성북구의 경우 2016년 주민참여예산제 사업선정에 대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실천적 시민운동을 시행하였으며, 특징적으로 이와 대비하여 일본은 타운홀 미팅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다. 성북구의 타운홀 미팅사례는 아래 그림과 같다.



서울 서초구

서울 서초구는 2016년 지역주민 50여명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다. 주제는 '양재권역 아이들의 안전'이며, 5~6명을 한 조로 묶어 조별 게임 형태로 진행하였다. 타운홀 미팅은 아이들에게 더 안전한 마을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구체적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연계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의 관심 상황과 이슈를 타운홀 미팅을 통해 파악하고, 대안 모색 및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고자 하였다. 이러한 서초구의 타운홀 미팅은 주민들의 실제 불편한 점을 확인하고 아이디어를 같이 모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서울시 희망은돌 프로젝트

서울시는 2012년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희망은돌 프로젝트에 타운홀 미팅을 활용하여, 시민참여에서 시민주도로 정책을 실행하였다. 이러한 타운홀 미팅의 결과 지역 단위에서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와 대책이 필요하며, 숨어 있는 빈곤층을 찾고, 세밀한 대책을 마련하고,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맞춤형 지원체계 및 중복과 누수 없는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구시범사업지원이 필요하며, 신규 발굴도 중요하지만 기존 자료 등을 활용하여 구체적인 서비스로 연계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논의되었다. 그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료를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현장의 민간단체와 유연하게 소통하고자 하였다. 서울시의 경우 실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민주도로 정책을 실행하였다는 데 그 의의가 있으며, 대안의 마련 과정도 매우 적절하였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2013년 “2030 청년 여성, 내 삶을 바꾸는 서울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제3회 타운홀 미팅을 시행하였고, 주요 내용과 그에 따른 의견은 아래의 표와 같이 제시되었다.

▶ 기간 : 2013년 8월 22일(목) - 9월 27일(금)		
▶ 주제선정		
- (추진방향) 서울시 여성의 세대별 주요 이슈에 관한 토론회 추진		
- (중점사항) 2030세대의 주요 이슈에 관한 내용으로 3회 타운홀 미팅 기획		
- (주요내용) 우리 재단의 연구와 연계하여 2030세대 일-생활 실태 관련 내용을 선정하고 세대의 적극 참여와 상황극 노래 등 다양한 액션으로 시민과의 빠른 공감 유도		
▶ 참가자 섭외 및 협력기관		
구분	주요내용	협력기관
주제발표	2030세대 청년여성의 일과 생활에 대한 고충을 공유하고 서울시 청년여성 지원정책방안 모색	정책연구실 문OO 연구위원

구분	주요내용	협력기관
일I (상황극)	참여자 : 일-생활 관련 여성청년의 고민과 해결을 위한 노력들을 2030세대의 상황극을 통해 표현	서울시 일자리정책과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서울시 동행봉사단 서울시 청년일자리허브
일II (동영상)	2030세대가 직접 제작한 스펙쌓기 관련 동영상을 통해 스펙의 올바른 개념과 가치 제고	고용노동부 홍보팀 중앙대학교, 숭실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등
생활I (노래)	2030세대 스스로 자신의 고민을 함께 할 수 있는 자조모임을 구성하고 운영함으로써 문제해결을 도모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인생설계 상담 조언을 듣고 싶은 2030세대의 희망을 노래로 표현	참여연대 노래모임 참종다 동작청년회, 한양대학교 JA코리아
생활II (미니토크)	2030세대의 주거 문제에 관한 고민 공유 주거공동체라는 새로운 주거문화를 통해 대안을 찾은 세대 청년여성의 미니토크 진행	비혼여성주거공동체 특집 소행주(소통이 있어 행복한 주택) 은평구 은실아네, 민달팽이유니온
지원인력	프로그램 안내, 참여자 질서유지 행사장 세팅 등 지원	중구자원봉사센터 동작구자원봉사센터
홍보	인터넷 포털사이트와 연계한 토론회 홍보 주제와 관련한 온라인 투표로 네티즌 의견 수렴	다음커뮤니티 미즈넷

▶ 추진체계
- 주제선정(2030세대 이슈 조사)→내용구성 및 참여자 섭외→서울시정책박람회 설명회 참석 및 계획서 제출→패널별 사전모임, 기획안 작성→초청장 제작 및 발송, 다음 미즈넷 온라인 홍보 및 투표 시행 →사전준비회의→자원봉사자 모집 및 업무분장, 현장준비→타운홀 미팅 시행

▶ 주요 의견사항

긍정적 의견(일부 발췌)	개선 및 제안 사항(일부 발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형태의 토론방식이 흥미 있음 · 2030세대 아이디어가 돋보여 재미있음 · 2030세대 청년들의 주도적 참여가 긍정적임 · 청년여성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음 · 패널액션토론, 2030세대의 경험들을 들을 수 있어 공감대 형성 · 시간이 짧고 핵심적으로 잘 운영되어 재미있음 · 청년의 일자리에 대한 고민과 스펙쌓기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좋음 · 당사자인 2030청년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었던 점이 긍정적 · 딱딱하지 않게 현실적인 주제의 토크가 다루어져서 긍정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여성능력 개발원의 영상 일거리 부르릉 버스도 있는데 안나와서 아쉬움 · 주제 발표 시 스크린의 자료내용과 제시된 자료의 내용에서도 작은 글씨로 인해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 ppt는 작더라도 자료의 그림은 컷으면 함 · 사전 희망메세지를 받고 자유토론을 했으면 함 · 4050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토크도 진행되었으면 좋겠음 · 조금 더 유머가 있는 진행이 필요 · 2030세대 청년들의 참여율을 높였으면 함

광주광역시 수완동

광주광역시 수완동은 2014년 전국 최초로 타운홀 미팅을 도입하고 추진하였다. 전국 최초 신개념 타운(홀) 미팅을 통해 ‘정책토론’과 ‘주민배심원제’ 및 ‘전략동장 주민추천제’를 추진하였고, 지역의 갈등해소와 주민의 주체적인 의사결정을 구정에 반영하는 혁신행정을 추진하고자 하였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여 성공을 거두었으며, 또한 동장 주민추천을 통해 주민 참여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보여주었고, 수완동 행정체제(대동제/분동) 여부에 대한 주민 갈등 해소의 계기 마련과 전국 최초로 주민이 직접 우리 마을 동장을 결정하는 ‘동장 주민 추천제’를 실시하였다.

의제해결 과정	민주적인 절차
의제토론	수완동 대동제와 분동 결정 문제 자유로운 원탁토론
대안도출	전수조사, 표본조사, 주민배심원제의 해결 방안
우선순위	민주적인 결정으로 주민 배심원제 결정 도출
방법결정	주민 대표 배심원단 모집, 주민 참여 행정
방법적용	주민투표 실시, 최종 대동제로 결정 - 행정 실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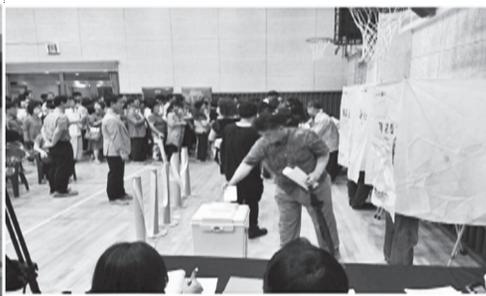
〈의제설명 PPT〉



〈동장 후보자 대기 및 동 운영계획 발표〉



〈패널 질의 응답 및 주민현장 인터뷰〉



〈주민투표〉

충남 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2016년 1차 청소년, 2차 여성을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추진하였다. 참가자는 청소년 600여명, 여성 500여명이며, 논의주제는 영화관 신설, 송년콘서트 개최(아이돌 섭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도서 확충(도서관 신설), 문화공연 확대, 한글교실 심화과정 등 확대 시행, 타운홀미팅 확대, 국도변 스쿨존 속도제한 강화, 청소년수련관 지원 확대, 글로벌 인재 해외연수 지속 추진, 진로직업 박람회 프로그램 다양화, 시민공원 쓰레기통 설치, 명사 특강, 안전대책 추진, 공원내 어린이 분수대 설치, 관공서의 외국계기업 이용제한 등이다. 논산시의 경우 이러한 타운홀 미팅의 주요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실제 추진현황을 제시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들의 참여에 따른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였다.

대구광역시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는 2016년 시민복지와 관련한 원탁회의를 진행하여, 원탁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정책 참여를 공고히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도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에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으며, 제주도 교육감은 제주 희망교육을 위한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는 등 제주도 역시 일부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타운홀 미팅의 사례는 주민들의 다수의 참여와 공감 그리고 학습을 위한 타운홀 미팅으로 제주도에도 확산될 필요가 있으며, 특히 공공정책의 결정 등 정책과정에 있어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 타운홀 미팅이 효과적인 시민실천운동으로 활용될 수 있다.

2) 국내 학습공동체 실천사례

학습동아리 중심 학습공동체운동: 진주시 이반성면 PC동호회

진주시 이반성면 지역은 ‘이반성 PC동호회’를 중심으로 활발한 지역사회교육활동

이 일어나고 있는 곳으로, 쌀보리 농사를 주업으로 하는 전형적인 농촌특성을 갖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1999년 30~40대 청년농민 20여명이 진주 경상대를 찾아가 컴퓨터 기초과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을 시발점으로, 먼 전역에 컴퓨터 붐이 일면서 진주시청과 진주산업대, 이반성초등학교 등지를 옮겨 다니면서 초보자를 위한 기초과정과 기초과정 이수자를 위한 심화과정 교육을 모두 마치게 되었다.

이어 이들은 'PC동호회'(현 회원 150여명)를 결성했고, 기증받은 PC를 수리, 주민들에게 나눠주는 한편 1999년 6월에는 문을 닫은 이반성중학교를 개조하여 '푸른 문화의 집'이라는 지역 내 평생교육센터를 개설하였다.

여기에는 컴퓨터교육장과 마을도서관, 카페처럼 꾸민 열린 공간 '마루' 등을 갖추고 있어서 농번기가 끝나면 영화상영과 함께 서예교실, 천연염색 등의 강좌를 운영하였고, 이들은 정보화교육의 확산에 멈추지 않고, 정보화를 통해서 농촌의 경제난 해결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고 '푸른문화의 집' 개관 이후 외부전문가 초청 특강 및 외부 지역 공동견학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등의 준비과정을 거쳐 2000년 10월에는 주민들의 생업공동체인 영농조합법인 '초록'을 설립하고 인터넷시스템을 갖추었다. '초록'은 농산물을 직거래판매하는 것과 함께 고향지킴이(경조사 지원, 묘지, 빈집관리, 농장관리, 향우회 동호회 홈페이지 관리행사 대행)/용역사업/유휴경지개발컨설팅/먹거리 생산유통사업/소득원 개발사업/생활환경 개선사업/농촌문화 선양사업 등의 테마사업을 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스톡홀름 챌린지어워드 2002'에서 e-비즈니스 모델부문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반성면 PC동호회의 활동은 인근 면으로까지 정보화 열기를 확산시켜, 인근 지역 면사무소에는 컴퓨터와 정보검색실을 갖춘 정보문화센터가 잇따라 들어섰고, 이 모임은 장차 인근 5개면을 통합하여 '농촌정보문화연구회'로 확대 운영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대학 등을 개설하여 지역에 필요한 인력개발 프로그램이 직접 운영되었다.

이 과정을 주도해온 PC동호회 황인철 회장은 무엇보다도 큰 소득은 "주민들의 자발성을 이끌어내고 지속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정보화는 골치 아픈 것이라고 생각하던 농촌주민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자부심을 갖게 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반성면에서의 학습공동체 운동은 지역사회의 자생력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조선일보, 2002. 11. 01.).

주민자치형 학습공동체운동: 한우리아파트 자치부녀회

한우리아파트는 대전 서구 신도심인 둔산지역과 함께 개발되어 1995년 12월에 600세대가 입주한 신개발지역으로 입주를 시작하면서 단지 내 여성을 대표하는 아파트부녀회가 창립하게 되고, 이들은 아파트 화합을 위한 ‘한우리 주민잔치’를 동 대표회와 공동주관하면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주민잔치는 주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아동장기자랑과 훌라우프 게임, 노인을 위한 옷놀이대회 등을 준비해서 아파트 주민 상호 간에 친숙해지는 계기를 만들 수 있도록 하였고, 이후 부녀회에서는 주민들을 위한 교육문화 복지부분에 초점을 두고 주민들의 필요에 대한 설문지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도서실과 교육사업이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드러나면서 이를 추진하게 되었다.

주민요구조사 결과 상당수 주민들이 도서실이 있다면 이용하겠다고 답한 것을 근거로, 부녀회에서는 회원 10여명으로 ‘한우리도서실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처음에는 아파트주민으로부터 기증받아 운영할 생각으로 아파트 각 라인 책임자들에게 도서실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하고 라인별로 공고문을 붙여 협조를 구하였다. 그러나 도서기증이 기대에 못미치게 되자, 부녀회에서는 지역내 다른 기관들의 지원과 협조를 통한 도서실 설립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 도서실 계획서와 협조공문을 가지고, 아파트 인근의 은행과 해당 관공서 등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은행에서 약간의 찬조를 받은 이외에 공식적인 지원을 얻는 데에는 실패하자 구립 갈마 도서관을 찾아, 3개월 주기로 500권 정도의 도서를 교환 대여받는 지원을 얻어내게 되었다. 도서실 공간은 아파트 관리동 내의 동 대표회의실을 활용하기로 하고, 개소 준비에 들어갔으며, 부녀회원들은 지역 내 대형서점과의 접촉을 통해 도서의 저렴한 구입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다른 아파트단지의 도서실 운영방안을 배우려고 시도했지만 적절한 예를 찾지 못한 채, 구립도서관의 대여서적 500여권과 부녀회 구입 신간 300여권, 주민기증서적 300여권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한우리도서실은 부녀회에서 자체적으로 30여명의 도서운영위원을 선출하여 3명 1조의 자원봉사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약 4,000여권의 장서로 매주 평균 100여명의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 방학기간 중에는 성인부와 아동부로 나누어 우수독후감을 시상 후, 한우리 회보에 실어주었다.

도서실 운영 이외에 부녀회에서는 아파트주민을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교육프로그램 운영시 필요한 전문강사를 주민 가운데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노인회와 공동주관으로 운영하는 한문공부방과 한문서예반, 부녀회 회원들의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품앗이 자녀공부 지도가 대표적. 또한 부녀 회원을 위한 ‘교양문화교실’을 연 1회 실시하는데, 자녀교육, 생활법률, 소비와 환경 문제, 올바른 먹거리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다.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도서실과 교육을 매개로 한 아파트자치활동에서 얻어진 연대의식은 여러 지역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로까지 이어지는 성과를 낳았고, 주민자치운동을 통하여 둔산지역 러브호텔 반대에도 적극 참여하여, 전 주민들의 서명동의를 공식화했고, 주변의 버스노선 문제와 승강장 옮기기, 공동 주택에서의 전기요금 부당성에 대해서도 전 주민들에게 알리는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어서, 아파트 단지 내의 주민자치활동이 더 넓은 지역사회로 확대되어가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2001).

지역문제 해결 중심 학습공동체운동: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

도림천 문제는 관악구청이 교통상의 이유로 복개공사를 하겠다고 발표한 1996년 처음 이슈로 떠올라 ‘환경과 공해연구회’를 중심으로, ‘YMCA시민사회개발부’, ‘관악 청년회’, ‘서울대 자치연대’, ‘서울대 환경동아리’ 등이 모여 ‘도림천 복개 저지를 위한 시민연대’를 결성하고 복개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주민들은 도로 증설로 인한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와 도림천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고, 복개반대운동 역시 힘을 잃어 일부 구간이 부분복개 되었고, 나머지 구간은 2016년 현재 추진 중에 있다.

이 과정에서 ‘시민연대’는 지역주민들에게 뿌리내릴 수 있는 방안으로 일상적으로 지역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생활자치형 주민운동조직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결과 생겨난 것이 1999년 2월 결성된 ‘건강한 도림천을 만들기 위한 주민모임’이다. 이 모임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도림천과 접하고 교감을 얻을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 주력하였는데,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생태탐사단 운영과 도림천을 무의미한 공간이 아닌 의미있는 ‘장소’로 만들기 위한 영화제이다.

생태탐사단의 경우, 당시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한 것에 착안한 것으로, 이를 매개로 가족회원을 늘려가면서 주민들의 참여가 확대되어갔다. 초기에는 대학생 회원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점차 지역주민들로 회원이 대체되어갔고 어머니와 아이 또는 아버지와 아이로 구성된 40여 세대의 가족회원이 주축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

인근아파트 거주민인 이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높고, 환경에 대한 인식이 열려져 있어 비교적 쉽게 생태탐사단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생태탐사단은 매년 초 지역내 초등학생 약 40명의 신청을 받아 한달에 한번씩 매번 다른 프로그램으로 탐사를 하는데, 아이들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만들되 어머니들이 동행하여 같이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아이들 위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경우는 어머니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이끌었고, 이와는 별도로 매달 한번씩 낮시간을 이용해 차를 마시면서 시사문제나 침구술과 같은 실용적인 주제를 정해 간단한 강연이나 토론을 마련하여 도림천 모임의 어머니회원들의 만남을 지속하고 지역의 주체로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아동의 경우도 ‘도림천 웹진 제작반’ 같은 후속모임을 기획하여 지속적으로 도림천과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밖에도 지역문화축제로 도림천 영화제를 지역작품을 공모하는 도림천 영상제로 전환하여 지역주민들의 더욱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도림천 벽화 그리기(2001.5) 등의 행사로 지역청소년들의 참여를 확산시켜 갔다. 도림천 주민모임은 다른 지역과도 연대사업을 실시하여 1999년 10월에는 안양천 살리기 민간네트워크에 참가하였고, 2001년에는 관악동작지역 통일연대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여성정치세력 민주연대, 2001).

2. 국외 사례

1) 국외 타운홀 미팅 실천사례

일본 고다이라시

일본 고다이라시는 매년 3회 이상 시장과 주민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고 있다. 일본은 특징적으로 타운홀 미팅을 소규모로 진행하고 있으며, 2016년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p>1차 타운홀 미팅(동부공원, 6월) : 주요 테마 없음, 참가자수 6명 주요 내용 : 도서관 택배서비스 이용개선, 시정 상황 홍보, 빈집 방법 등</p>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town hall meeting.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市民と市長のタウンミーティング' (Town Meeting with Citizens and Mayor). Several people are seated around a table, engaged in discussion.
<p>2차 타운홀 미팅(루네 코다이라 리셉션 홀, 8월) : 주요 테마 없음, 참가자수 4명 주요 내용 : 슈퍼이용불편 개선, 상가 활성화, 커뮤니티택시 등</p>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town hall meeting.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市民と市長のタウンミーティング' (Town Meeting with Citizens and Mayor). Participants are seated around a table, and one person appears to be presenting or speaking.
<p>3차 타운홀 미팅(오가와마치 잇초메 지역 센터 집회실, 9월) : 주요 테마 없음, 참가자수 1명 주요 내용 : 시민 특징 살리기, 버스노선 개선, 전주 지중화 등</p>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town hall meeting.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市民と市長のタウンミーティング' (Town Meeting with Citizens and Mayor). A few people are seated at a table, with one person facing the camera.
<p>4차 타운홀 미팅(시넷물 공민관 강좌실, 10월) : 주요 테마 없음, 참가자수 2명 주요 내용 : 시민협동, 쓰레기 재활용 문제, 세금 사용 내역 쉽게(일러스터 활용 등) 등</p>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of a town hall meeting. A banner in the background reads '市民と市長のタウンミーティング' (Town Meeting with Citizens and Mayor). Participants are seated at a table, and a person is standing at the front, possibly presenting.

대부분의 타운홀 미팅은 대규모로 진행되나 일본 고다이라시의 경우 소규모로 주민불편에 대한 부분을 특별한 테마없이 진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일본의 타운홀 미팅이 시사하는 바는 소규모로 진행되는 타운홀 미팅을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주민들이 실제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시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적극적인 행정 실천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 아메리카스픽스의 21세기 타운미팅 주요사례

2002년 7월 22일 뉴욕의 JAVITS 컨벤션센터에선 폐허가 된 월드트레이드센터

(WTC)의 재건축 방향(상업적 용도가 강화)을 바꾸기 위해 4,300명의 시민이 모여 'Listening to the city'라는 이름으로 토론을 시작했고, 그 결과 이미 시의회까지 통과한 'WTC 재건축계획'의 상업적 공간들이 추모와 시민들을 위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다.

2007년 8월 11일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개혁은 매년 2억불의 주정부예산이 투입되고도 500만이 넘는 무혜택 주민들로 골머리를 앓던 캘리포니아주정부와 주민들이 2007년 8월 캘리포니아의 주요 8개 지역을 위성으로 연결하여 총 3,500명이 모여 주 의료보험 개혁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참석자의 82%는 주 의료보험에 대대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고, 참석자들은 지역구의원, 신문사 등에 이메일 편지를 보내 타운미팅 결과를 전달. 비록 상원에서 14억불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핑계로 거부되었지만, 짧은 시간에 개혁의 모멘텀을 만들었다는 평가(하버드, UC버클리 공동평가)를 얻었다.

2007년 뉴올리온즈 카트리나 피해 복구를 위한 재건축계획은 2005년 뉴올리온즈는 카트리나로 인해 100,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70%의 주택이 유실되었고 18개월이 지나자 50%가 돌아오지 않게 되었다. 당시 주지사의 즉각적인 재건축계획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흥흥한 민심으로 주정부의 재건축계획은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러한 상태를 하나로 묶어내고 시민 스스로 계획을 만들었던 계기는 바로 두 번에 걸친 타운미팅이었고, 뉴올리온즈와 그 접경지역에서 모인 4,000명의 참가자들은 그룹을 만들었고 92%의 찬성을 보였다. 2007년 6월 뉴올리온즈 시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했고, 이에 따라 14억5천불의 예산은 지역별이 아닌 도시기능 재건을 위한 시설의 복구에 투입되었다.

2) 국외 학습공동체 실천사례

스웨덴의 스터디서클(study circle) 학습공동체

스웨덴의 학습동아리(study circle) 운동은 스웨덴 절제 운동의 지도자인 오스카 올센(Oscar Olssen)에 의해서 발전하였다. 그는 미국의 쇼토쿼 문학·과학 동아리(Chautauqua Literary and Scientific Circle)의 학습동아리로부터 아이디어를 얻어, 1902년 학습동아리를 절제운동 내에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였다. 올센은 학습동아리를 민중성인교육의 수단으로 발전시켰으며, 후에 "학습동아리의 아버지"로 인정받

왔고, 다른 사회운동 단체들 즉, 사회민주당, 노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기독교 운동 단체 등도 재빠르게 학습동아리를 조직하였다. 학습동아리는 조직 구성원을 모집하고 교육시키는 효과적인 수단을 조직에 제공하게 되었다.

스웨덴의 학습동아리는 19세기 후반 스웨덴이 직면한 어려운 상황에서 생겨났다. 그 당시 스웨덴은 가난, 인구성장을 뒷받침할 수 없는 경제조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 농촌의 빈곤, 처참한 생활 조건, 높은 문맹률, 사회적 불안정 등의 어려운 조건에 있었고, 더욱이 1840년에서 1920년 사이 스웨덴은 미국으로의 이민으로 인구의 1/3이 줄어들었다. 민중운동은 이러한 난관을 극복하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학습동아리는 자연스럽게 민중운동이 사람들에게 그들의 주장을 알리고, 형식교육을 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교육기회를 만들어 주며, 조직 구성원들에게 조직에 대해서 가르치는 매체가 되었다. 또한 학습동아리는 구성원들에게 지역사회나 조직에 민주적으로 참여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동아리 구성원으로부터 새로운 지역 지도자를 배출하였고, 결과적으로 학습동아리에서의 학습은 정치생활에 반영되었고, 결과적으로 민중 운동은 정치 사안에서 적극적으로 변화되었다.

학습동아리운동은 1902년에 시작되어서 스웨덴의 교육받지 못한 성인들에게 정규 학교체제에서는 배울 수 없는 시각, 이해 그리고 기술들을 제공하였다. 비록 여러 지원들을 받고 있지만, 학습동아리는 자기주도적 학습과 충실한 참여를 조장하였다. 데이비드 매튜(David Mathews)가 “민주주의는 대화에서 탄생한다”고 한 말은 20세기 초 스웨덴에 가장 적합한 것이었다.

학습동아리는 2차 세계대전까지 스웨덴에서 가장 중요한 성인 시민교육 형태로 성장하였고, 전쟁 이후, 학습동아리 활동은 민중운동, 정당, 종교단체, YMCA-YWCA, 대학확장프로그램, 공공기관 등의 구성원으로 확장되었다. 스웨덴 정부는 1947년에 정부 기금으로 학습동아리 리더의 봉급과 학습자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학습동아리 조직과 실천을 인정하고 공식화하였으나 점차 학습동아리의 학습내용은 예술, 기술, 문화, 여행 프로그램으로 변하기 시작하였고, 몇몇 학습동아리 협회의 직원들은 이러한 변화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아직까지 학습동아리는 공공의 문제를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ABF(노동자교육협회)의 패트릭 브레슬린(Patrick Breslin)은 “학습동아리는 점점 공공의 이슈에 대한 토론보다는 정당, 노동조합 그리고 협회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있는 형태로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공공의 이슈를 다루는 학습동아리를 육성하고자 하는 정부는 지난 몇 년 동안 공공의 문제를 토론하는 학습동아리에 추가 지원을 제공해 왔다. 정부와 협회들은 시민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형태로 학습동아리의 활용에 힘써오고 있다. 1980년 핵무기에 대한 국민투표, 최근 컴퓨터의 영향에 대한 국가적 관심, 그리고 환경오염 등과 같은 국가적 이슈들은 학습동아리에서 공공의 문제들에 관심을 증진시키는 데 영향을 주고 있다.

캐나다의 안티고니쉬(Antigonish) 운동

1920년대부터 전개된 안티고니쉬 운동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교육의 대표적인 예로 꼽힐 수 있다. 1919년 대공황 이후에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안티고니쉬 지역주민들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지게 되자, 그 지역 St. Francis Xavier 대학의 톰킨스(Thomkins)와 몇몇 교수들은 이들의 비참한 생활의 원인이 경제사회구조의 모순과 주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의 부족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대학을 중심으로 한 주민조직과 주민교육을 통해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1921년 민중학교를 개설하여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안티고니쉬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었다(Lotz, 1977: 105; Lovett, 1980: 160). 이 운동은 민주적 과정을 통한 의사결정을 중시하며, 성인교육과 공동체조직을 통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그들의 사회·경제적 조건을 개선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며, 이 활동은 오늘날까지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이어지고 있다.

남미 기독교기초공동체(Christian Base Community) 운동

남미의 기독교기초공동체는 1960년대 중반에 출현하여 이후 급속히 전파되며 성장하였다. 이는 주로 농민, 농촌임금노동자, 도시빈민들로 구성되며, 일상생활 속에서 성서읽기와 토론, 공동참회, 기도, 기타 협력적 활동 등을 함께 하였고, 한 동네에 사는 빈곤 주민들 10명에서 30명 정도가 참여하는 소규모 집단들로, 한 두 주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모여 성경을 읽고 대화를 하였다. 공동체는 주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매개하고 동시에 교제와 상호지원의 장을 마련하였으며, 이들에게 교회란 곧 신앙공동체를 의미하며, 공동체 학습은 이후 남미의 민중 신앙적 특성을 배태하는 토대가 되었다(한승희, 2001: 203-204).

Ⅲ. 시민실천 운동 확산 방안

1. 기본원칙

시민운동의 확산방안은 6가지 기본원칙이 필요하다.

첫째, 지속성의 원칙으로 현재의 일회성, 행사성 운동을 지양하고, 새롭게 진화된 형태로 내실화해야 한다.

둘째, 특별성의 원칙으로 획일적 형태의 사업이 아닌 지역의 자원(문화·환경·역사적 특색)을 반영해 차별화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체감성의 원칙으로 지역운동을 통해 창출하는 편익을 체감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내실있게 추진해야 한다.

넷째, 실천성의 원칙으로 기존 시민운동의 한계를 극복하여 보다 실질적인 실행력을 내재한 실천적 운동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양방향성의 원칙으로 지역과 주민, 주민과 지역이 지역의 문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서로의 가치를 인식·공유하고 상호 호혜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

여섯째, 신뢰성의 원칙으로 지역과 주민의 상호신뢰를 기반으로 추진하되, 이는 협동과 공유가치 인식을 통해 확산해야 한다.

2. 확산방안

1) 제주에 맞는 타운홀 미팅 지속적 진행

타운홀 미팅은 무엇인가?

타운홀 미팅은 기본적으로 마을회의를 하듯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조직내의 공동 관심사를 해결하는 의사결정방식으로 궁극적으로 조직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일(Work)을 제거(Out)하는 것이 목적이다.

주민들의 직접적인 토론과 심사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핵심의제를 결정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America Speakers라는 비영리단체에서 1995년부터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결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 온 방법 중 하나로 기존의 일반적인 타운미팅과 달리 '대단위 의제설정을 위해 직접 민주주의 방식과 IT를 활용한 대규

모의 소통 솔루션'이라고 할 수 있다.

원래 타운미팅은 사회적 의제와 관계된 이해당사자와 전문가, 활동가, 정치인, 일반 시민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투표를 통해 정책을 만들어가는 참여형 의사결정과정으로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이 방식은 미국 식민지 시대의 마을공동체 의사결정방식인 타운홀미팅에 기원을 두고 있는데 마을 사람들이 큰 홀에 모여서 토론하면서 마을의 규범들을 결정했다고 하며, 지금도 뉴햄프셔주의 런던데리라는 소도시에서는 별도의 대의기관을 두지 않고 주요 의사결정을 타운홀미팅으로 해오고 있다.

이런 전통적인 방식은 1995년 캐롤라인 루켄스마이어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진화되었다. 캐롤라인 루켄스마이어는 타운미팅 방식을 대규모 사회적 의제의 의사결정에 적용하고자 했는데, 아메리카스픽스라는 비영리단체를 설립하고 IT기술을 접목시켜서 '21세기 타운미팅'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방식의 대중적 토론을 조직화한 것이다.

아메리카스픽스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 의사 결정과정에 시민들을 참여케 함으로써 미국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정책결정자들과 일반 시민들 사이의 연계를 제도화할 수 있는 민주적 심의(democratic deliberation)의 전국적 기반'을 만들고자 하였다.

아메리카스픽스는 '21세기 타운미팅'을 통해 워싱턴 D.C 시민참여예산 책정, 오하이오 북동부 지역 재생사업, 뉴욕 그라운드제로 재건축, 뉴올리온즈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복구, 캘리포니아 의료보험 개혁 등 미국의 굵직굵직한 사회적 의제 해결에 기여했으며, 2011년 현재 연인원 16만 명의 시민들에게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타운홀 미팅의 목적은 무엇인가?

첫째, 신뢰구축(Building Trust)으로 모든 시민이 아무런 사후 걱정없이 자기의 생각과 아이디어를 솔직하고,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시민의 능력(Empowering Employees) 제고로 시민에 직접 관련된 일의 경우 시민이 더 잘 알고 있으므로 그들의 정서적 에너지를 계발을 위하여 책임과 동시에 권한도 부여한다.

셋째, 불필요한 작업제거(Eliminating Unnecessary Work)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시민의 불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제거한다.

넷째, 새로운 패러다임 창출(A New Paradigm)로 장벽이 없는 시민지향의 프로세스 중심의 새로운 규정을 정착한다.

타운홀 미팅은 어떻게 진행하는가?

아메리카스픽스와 같은 21세기 타운홀미팅을 기획하고 보급하고 있는 코리아스픽스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일반적인 진행방식은 아래와 같다.

사전준비단계에서는 의제의 쟁점을 구체화하기 위한 여론조사, 토론참가자 모집,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토론진행자) 교육, 장소 선정, 기술실무적 점검 등을 한다. 참가자 모집은 해당 의제에 관련된 지역이나 집단의 인구분포(성별, 연령, 소득, 거주지역 등)를 감안하여 배분하며, 또 참가자들에게 의제에 관련된 자료를 미리 제공하여 참가자들이 충분하게 토론할 수 있도록 예비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게 한다.

▶ 타운미팅 실시 계획시 검토사항

1. Why(미팅은 왜 실시하는가?)

- 목적, 배경, 취지 (구성원 공동 관심사에 대한 바람직한 아이디어 수렴 또는 조직내 현안문제 해결 등)

2. Who(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 목적에 부합하는 계층 또는 부서를 선정하고 몇회로 나누어 진행할 것인지를 결정(1회에 40~100명 정도로 하되, 5~6개조로 편성)

3. When(언제 실시할 것인가?)

- 주제 부여, 강평시 의사결정자의 참석이 용이하도록 함(일정 확인)
- 기간은 1일, 1박2일 또는 2박3일(문제 해결의 난이도에 따라 결정)

4. Where(어디서 실시할 것인가?)

- 장소는 분위기를 좌우하므로 직장과 떨어져 있고, 안락한 기분을 느끼게 하는 장소 적당

5. What(어떤 주제를 선정할 것인가?)

- 토론 주제는 가급적 단기 해결과제가 적합
- 주제가 구체적(총론보다는 각론)이어야 바람직한 결론 도출 가능

6. How, How much(실시방법 및 소요예산?)

- 효과적 운영을 위하여 주진행자 1명, 각 조별 토론 진행요원 5~6명을 선정
- 예산 편성, 감사 섭외, 교재 준비, 차량 등 세부사항을 철저히 점검

토론진행은 보통 몇 시간에서 하루 종일 하게 되며, 참가자 수는 거의 제한이 없다. 예컨대 뉴욕 '그라운드 제로 재건축 타운미팅'의 경우 동시에 4,300명이 토론에 참가했다. 테이블 당 8~10인 정도가 참여하는 원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며, 사전에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각 테이블은 동일한 순서와 주제로 토론하되, 각 테이블의 토

론 내용과 결과는 협업프로그램 등의 IT를 통해 본부석으로 취합되고, 분석팀은 실시간으로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자들은 분석 결과를 공유하며 다음 단계의 토론을 이어가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퍼실리테이터(토론 진행자)들로 퍼실리테이터는 토론의 진행자, 촉진자, 도우미 등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절대 토론 내용에는 개입하지 않고, 토론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중심을 잡고, 참가자들이 골고루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토론의 열개를 짜고 개진된 의견들을 체계화하여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타운스픽스'의 진행 방법과 노트북, 키패드(keypads), 협업프로그램 등의 기술적 활용 방법 등을 미리 훈련하고 의제에 대한 사전 교육을 수료한 사람들이다.

사후정리는 행사가 끝나는 당일 1차 보고서가 작성되고, 보다 깊이 있는 분석을 거친 뒤 의제에 관련된 일정에 따라 최종보고서가 제출된다. 1차 보고서가 미흡하더라도 당일 현장에 정치인, 단체장, 지방의원 등 책임성 있는 정책결정자들이 반드시 직접 참여해서 의견도 개진하고 결과도 보게끔 해야 한다. 토론의 1차적인 목적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정책결정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것으로 통상 정책결정자들은 직접 참석하지 않거나 시차를 두고 토론 결과를 보게 되면 갖가지 이유를 들어 시민참여의 의의를 무시하거나 축소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시간	내 용
30분	타운홀 미팅 진행 방법 소개
1	팀 리더와 서기 선출 실습 1 - 주제 구체화 주어진 주제를 정해진 시간 안에 다룰 수 있도록 적절한 방향과 범위를 정하는 것
1	실습 2 - 문제점 분석 구체화된 주제에 관한 다양한 문제점을 카테고리별로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문제를 2~3가지 선정하는 과정
1	실습 3 - 원인 분석 선정된 핵심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원인을 2~3개 선정하는 과정
1	실습 4 - 해결안 도출 및 선정 선정된 핵심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안을 도출하고, 각각의 실행력 대비 효과성을 평가하여 최상의 해결안을 선정하는 과정
1	실습 5 - 실행계획 수립 선정된 해결안을 실행할 수 있는 계획을 What-How-When-Who 차트를 활용하여 수립하는 과정
1	팀별 프레젠테이션 및 의사결정
총 6시간 30분 진행	

타운홀 미팅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

첫째, 토론의 주제가 시장과 주민 공통 관심사여야 한다.

둘째, 혁신후원자(Sponsor)의 신속하고 즉각적인 행동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문제에 대한 제안이 창의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한다(무엇을, 누가, 언제까지 할 것이며, 제안의 실행에 따른 혜택비용이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제안들이 현재 시가 지향하는 목표와 일치되어야 하며, 기존의 행정 체계 및 프로그램과 연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뿐만 아니라, Work-Out자체가 혁신을 위한 참여와 활력의 엔진이라는 시장의 이해와 지원이 필요하다.

여섯째, 진행자는 사전에 Work-Out의 프로세스와 관련기법을 충분히 교육 받아 효율적 진행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일곱째, 시에 대한 비판과 불평을 넘어 실현 가능한 제안을 하겠다는 참가자들의 인식과 태도가 중요하다.

여덟째, 현업에서 격리되어 주어진 주제에 몰입할 수 있는 쾌적하고 편리한 토론 장소가 있어야 한다.

아홉째,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하여 시장이 약속한 안건이 정해진 기한 안에 실행되고 있음을 Work-Out 참가자 및 시민이 인지하도록 하여 Work-Out의 가치를 증진 시켜야 한다.

타운홀 미팅은 어떤 장점이 있는가?

기존 미팅이나 워크샵 문제	타운미팅 방식의 워크샵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자(스폰서)가 참여하여 토론을 주도하므로, 팀원들이 허심탄회하고 열린 토론을 하기 어려움 · 해당 부서나 팀과 연관된 문제나 이슈만 다룰 수 있음 · 단순히 토론에만 그치거나, 심층적인 것보다는 일반적인 해결방안만 수립 가능 · 스폰서가 의사결정이나 실행 책임 여부를 일방적으로 코멘트 하거나 지시 · 일정한 진행 프로세스가 없어, 팀원들이 전체적인 일정이나 단계를 알지 못함 · 객관적 입장의 퍼실리테이터가 없어, 갈등관리나 원활한 의사결정이 안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와 관련한 의사결정권자(스폰서)는 참여하지 않으므로, 팀원들이 허심탄회하고 열린 토론을 할 수 있음 · 해당 부서나 팀은 물론, 조직 전체와 연관된 문제나 이슈도 다양하게 다룸 · 열린 토론으로 심층적이고 실행 가능한 해결방안 수립이 가능 · 스폰서에 의해 의사 결정된 실행안의 책임자도 자체적으로 결정하므로 참여도가 높음 · 일정한 진행 프로세스가 있어, 팀원들이 전체적인 일정이나 단계를 정확히 알 · 객관적 입장의 퍼실리테이터가 있어, 갈등관리나 원활한 의사결정이 가능

기존 미팅이나 워크샵 문제	타운미팅 방식의 워크샵 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템플릿이 없어, 워크샵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움 ·워크샵을 마치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팀원들의 오히려 약함 ·비즈니스와 연관된 이슈나 과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친목이나 단합에 치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해진 템플릿이 있어, 워크샵 결과의 체계적인 관리가 용이 ·워크샵을 마치면서 분명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팀원들의 오히려 높아짐 ·비즈니스와 연관된 전략적이고 중대한 이슈나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

타운홀 미팅은 제주도에 왜 필요한가?

제주의 시민감동을 위한 참여확산과 정책시행은 결국 시민들이 느끼고 참여하여 그 가치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 특히 현재 진행하고 있는 다양한 과제들을 직접 해결해 나가는 측면도 있으나 이를 보다 현실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실현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가 실제 주민들에게 감동행정의 제공과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직접 주도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현재와 같은 Top-Down 방식의 정책의 실현도 필요하나 Bottom-Up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감동과 신뢰회복에 더욱더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타운홀 미팅을 각 지역별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진행테마는 현재의 정책내용에 대한 실천적 방안과 함께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대안을 확인하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제주도에 가장 필요한 시민참여 확산방안은 결국 시민들의 직접 참여가 가능한 지속적인 교육과 미팅의 진행이다.

제주도 타운홀 미팅 운영계획 예시

구분	정기 타운미팅	수시 타운미팅
추진시기	연 2회(필요시)	수시
목적	정책 운영에 대한 시민의 평가의견수렴, 주요업무계획 수립시 반영	정책 추진 시 시민의 이해 증진 및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
토론주제	제주도 미래정책 추진전략	시정 세부분야별 정책
참석자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300명 내외	시민, 전문가, 공무원 등 50명 내외
운영절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제 총괄 보고(기획팀) ② 테이블별(분야별) 의견 공유 및 상호토론 ③ 상호토론 결과 공유 및 집단토론 통해 중점 추진정책 선정 ④ 타운미팅 후, 주관부서 검토 실시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제 보고(주관부서) ② 전문가, 이해관계기관 등 사례발표 또는 의견 개진 ③ 참석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④ 타운미팅 후, 주관부서 검토 실시

구분	정기 타운미팅	수시 타운미팅
운영방법	전문업체 위탁 운영	직접 운영
주안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석자 모집시 - 주민동원을 배제하고, 다양한 계층의 자발적 참여기회 제공 - 분야별 핵심정책에 대한 주민의견 사전청취로 관심사항 의제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 선정시 - 예산 비중이 높은 분야 우선 - 시장 주요공약사항 우선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후관리 철저 - 주관부서 검토 후 주요업무 계획 및 예산 반영 추진 - 주민의견 반영결과 피드백 실시 	

2) 학습공동체 활용 및 확산

학습공동체는 왜 필요한가?

시민운동의 확산을 위한 방법으로 지자체가 선택하고 있는 것은 대중적 강연이나 이벤트성 행사가 대부분이나 이러한 방법은 일회성으로 일상적 실천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운동으로 확산되기 위한 방법으로 학습공동체 활용이 필요하다.

실제 학습공동체 활용사례를 보면 “스터디 모임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모임 안에서 경험도 서로 나누고... 실질적으로 배우는게 정말 많아요. 학습을 통해 새로운 배움에 대한 동기나 열정도 생기는 것 같고... 강의, 교육 많이 들었는데 모임에서 함께 하며 배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서대문구 사례F).”

이는 결국 제주도의 정책 중에서 본인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 지원정책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변화시키는데 가장 효과적이며, 이를 위해 제주도의 행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학습공동체의 운영방안은 무엇인가?(추진주체)

첫째, 추진주체로 학습공동체 운동은 지역 주민의 자발성에 기초하여 ‘밑으로부터’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 재천명될 필요가 있다. 학습공동체운동은 풀뿌리운동이며 주민의 자발성이 훼손되었을 때는 심각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는 공공기관이나 사회단체가 초기 점화 역할을 하는 견인세력으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지원’세력일 뿐 ‘주체’가 될 수는 없다는 점을 명백히 하여, 처음 전개과정에서부터 학습을 위한 기반시설 또는 환경조성자로서

제한된 역할범위 안에서 움직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 않다면, 겉보기엔 활발해 보인다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생명력 있는 학습공동체로 성장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 내 추진주체로 여성학습자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사회의 자생력 확보라는 학습공동체의 목표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지방화'와 일맥상통한다. 지방화란 중앙 중심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질서에서 벗어나 각 지방이 상대적 자립을 확보하여 자주적인 발전을 추구하는 것으로 중앙집권 국가의 통제 획일주의 중앙문화에 대항해서 지방분권, 시민자치, 지역적 개성, 지역문화를 우선시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이렇게 볼 때, 생활문제 발생의 '현지'에 가장 근접해 있는 여성은 생활의 정치담론화로 '식민지화된 생활세계'에서의 소비 여가 중심의 축소된 생활경험을 정치주체로 끌어올리기에 매우 적합하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주민으로서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는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적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진정한 지방화를 도모할 수 있는 지방 정치의 주체로 나서기에 매우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여성학습자들은 정치의 주체뿐만 아니라, 문화의 주체로 활동하기에도 유리. 지역사회에서 접하는 많은 학습주체들은 지역 내 문화활동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지역문화를 보전하는 주체를 직접 다루기도 한다. 학습공동체 활동을 통한 문화에 대한 관심은 자연스럽게 문화 관련 자원봉사, 문화행사 참여, 생활문화의 탐구와 개선의 방향으로 이어지게 된다.

학습공동체운동에서의 여성 세력화는 진정한 지방화의 기반으로 작용. 활발한 상호작용 속에서 여성학습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경험을 집단과 그 집단이 위치한 지역 안에서 재맥락화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학습공동체는 단순한 지연을 넘어서 공통의 과제를 안고 생활의 장을 함께 하는 사람들 사이의 공감에 기초한 관계를 형성하도록 하며, 이는 여성들이 삶의 현장에서 접하게 되는 지역문제를 발견하고, 인식하고 그 해결을 모색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확산이 가능하다. 요컨대, 학습공동체운동은 '밑에서부터'의 변화를 추진해가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서 여성은 중요한 추진 세력으로 새롭게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접근전략으로 첫째, 학습공동체운동의 추진은 중앙집중형이 아닌 다중거점 전략에 의한 분산형 접근이 바람직하다. 어떤 네트워크 망에서도 한 개 또는 몇 개의 허브에 연결이 집중된 형태는 작은 상황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안정성을 유지

할 수 없다. 인터넷상의 웹과 같이 최대 다수의 거점이 일렬이나 병렬구조가 아니라, 그물망구조로 연결되어있을 때, 학습공동체는 안정된 기반 위에서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할 것이다. 만약 지역내 특정기관을 중심으로 삼아, 평생학습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던 지역에서 그 시설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지역의 학습공동체 활동은 당분간 상당한 침체의 시기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또한 학습자가 학습 기반환경에 거리감을 극복하고 보다 쉽게 '접속'할 수 있도록 적절한 '인터페이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평생학습 기반시설이 종래에 비해 많이 증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시설활용이나 교육참여율이 급격히 높아지지 않는 배경에는 학습자 개개인이 시설·기관에 편안하게 다가가기 어렵거나, 반드시 가야 하는 유인가가 낮기 때문이다. 가능한 인터페이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예로는 기관에서 학습자들이 형식에 덜 얽매이면서 자신의 의견을 학습기획에 반영할 수 있는 '학습동아리'와 같이 다소 느슨한 학습형태를 제공한다든지, 공공도서관이 장서와 자료만 비치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의 학습필요에 맞게 주제별로 가공된 정보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또 다른 방략은 학습정보자료의 혼성(混成) 전략으로 성인을 위한 학습상담 시, 성인정보와 아동/청소년을 위한 교육정보를 혼합하여 제공한다면, 지역주민의 접근율은 높아질 것이다. 아동을 위한 사교육 정보는 성인 평생교육정보와 동떨어져 보이지만, 지역주민들의 현재 당면 관심사라면 성인들의 참여를 끌어낼 매개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주민의 접근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학습공동체운동의 접근단위는 최소 단위로 분절하여 접근하여야 한다. 걸어서 갈 수 있는 동일 초등학교 배정구역 정도의 거리에 주민들이 편히 접근하여 학습정보를 얻고 학습활동을 교환하고 새로운 참여로 진전시켜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좋을 것이다. 지역사회에서는 새로운 시설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평생교육시설로 기능하고 있는 초등학교, 동네의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적극 활용을 검토하는 편이 지역자원 연계 활용 차원에서 타당할 것이다. 이외에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접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금융기관, 동네 서점, 병원 등의 평생교육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근린시설에서도 학습자들이 학습정보 팸플릿을 얻거나, 교육정보 검색과 학습모임시 무료 시설이용 등과 같은 협조방안을 꾸준히 추진한다면 그야말로 생활 속의 평생학습으로 자리잡기 용이할 것이다.

셋째, 지속적인 성찰로 학습을 수행하는 최종 주체는 개인이며, 개인의 관여 없이

어떤 수준에서도 진정한 변화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평생학습자 개인은 사회적 영향력과 구조적 제한 아래 놓인 존재로, 그 변화의 결과는 개인일 수 있으나 변화의 과정은 결코 개별적일 수 없다. 학습공동체운동은 ‘공공(公共)의 영역’에서의 ‘공동(共同)의 학습과 실천’을 모토로 한다. 그러나 이 때, 공공 영역에서의 학습과 실천은 사(私)적인 영역에서의 학습과 분리되어 있지 않다. 사적 영역에서 개별화된 생활경험은 동료 학습자와의 협력 안에서 공공의 공동 과제로 승화하며, 공공영역에서의 논의 결과는 학습공동체 안에서 사적인 것으로 전환되어 일상 속에 반영된다.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이 자유로이 경계를 넘나들며 서로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바로 학습공동체의 모습인 것이며, 이는 학습공동체 운동의 역사적 기원에서도, 현실사례에서도 확인되는 바이다.

지역사회에서의 학습공동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학습 본연의 정신을 잃지 않는 것이며, 그 이상향은 자신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각성하며 자신의 삶과 사회의 개선을 도모하는 학습자들의 공동체에 다름 아니며, 우리가 어딘가에 가고자 할 때,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도달하여야 할 ‘목적지’이므로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목적지를 놓치지 않는 일이 중요하다.

3) 공간 나눔 활용 및 확산

일본의 경우 지자체 사회교육센터(공민관)에서 제공하는 장소에서 주민 주도적으로 학습공간을 활용하는 시스템이 존재한다. 지역주민들이 본인의 지역에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서대문구 <공간 나눔 운동 ‘착한공간나눔 릴레이’> 사례는 민간이나 공공기관에서 평소에는 잘 사용하지 않는 공간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프로젝트로 2012년 4월부터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종교기관 및 민간시설도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주차장, 민간영역의 도서관, 회의실, 문화시설 등 다양한 공간을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러한 사례가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역별 공간지원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박삼근(2014), 선진시민운동 성공을 위한 지자체 역할 - 실천학습공동체와 공간나눔문화 정책: 서대문구 사례를 중심으로, 선진화 포커스 제221호.
- 광주광역시(2014), 전국 최초 타운(홀) 미팅 도입 추진.
- 권기태 외(2013), 민선 5기 지방자치 혁신사례와 확산방안 모색, 희망제작소.
- 김명환 외(2008), 원스톱 민원행정서비스 개선방안 연구, 안전행정부.
- 김명환 외(2010), 지역기관 특성별 민원행정 모범모델 개발, 안전행정부.
- 김태일 외(2008), 민원행정 체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안전행정부.
- 남양주시(2015), 친절Up, 만족Up 감동민원서비스 제공.
- 논산시(2016), 타운홀미팅 추진현황.
- 대구광역시(2016), 대구시민 원탁회의.
- 동작구(2015), 타운미팅 계획.
- 박명철 외(2013), 민원행정 증장기 계획 수립, 황성군.
- 박영선 외(2015), NPO지원의 증장기 전략에 관한 연구 보고서, 서울시.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2014), 서울지역 타운홀미팅 결과보고서.
- 서울시(2012), 희망운동 이야기.
- 서울시여성가족재단(2013), 제3회 타운홀미팅 결과보고서.
- 안전행정부(2012),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요약).
- 오수길 외(2007), 주민참여 촉진을 위한 민간참여 현황분석, 행정자치부.
- 윤광석 외(2010), 특이민원 응대매뉴얼 개발 연구보고서, 국민권익위원회.
- 이남주 외(2001), 마을 전체가 배움터이다, 한국YMCA.
- 이동현(2016), 도농협동운동의 의미와 추진방안 -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중심으로, 농협 CEO Focus 374호.
- 조선일보, 2002.11.01, <http://www.choroc.co.kr>, <http://www.ibs.or.kr/cyberpc/> 참조.
- 한국공공자치연구원(2007), 워크아웃 타운미팅 활용방법.
- 행정자치부(2010), 민원 개선사례 확산 위한 학습공동체 개설 보도자료.
- 행정자치부(2015), 민원행정 우수사례집.
- bookzip(2008), 타운미팅 커뮤니케이션 책 요약.
- SB컨설팅(2009), 타운미팅 방식의 미팅과 워크샵 프로그램 안내.